

# 회원사 분리발주 수주 현황

## (9월 21일 ~ 10월 20일)

(5억원 이상)

공고명	실수요기관	개찰 일시	업체명	낙찰금액(원)	대표자	회원사지역
기숙사 리모델링 기계설비 공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각급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9.28	(유)진보산업	875,081,990	하성호	부산
시립고양정신병원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10.8	(주)대흥기연	643,745,510	윤용근	부산
점촌고등학교 기숙사증축 및 생활관보수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교육청	10.14	(주)세일	612,025,000	강동원	경북
남산역 및 두실역 환기설비 개량 및 석면철거공사	부산교통공사	10.18	(주)윤호건설	995,264,620	김전태	서울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부산대학교	10.19	(주)고산건설	1,159,630,810	하덕진	전북



### 무한지식

### 다빈치의 지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람의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만인부동의 원칙과 종생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만인부동의 원칙이란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종생불변의 원칙은 타고난 지문은 평생 똑같다는 것이다. 심지어 없어지더라도 다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지문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종종 범죄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로 등장할 뿐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문은 태어나기 5~6개월 전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나 위험물질 같은 것에 따라 지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문은 유전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런가 하면 고고학자들에게도 지문은 중요하다. 토기에 묻은 지문이나 미래에 남은 지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 자료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왼쪽 집게손가락 지문이 복원되었다. 이탈리아 중부 치에티 대학 인류학연구소는 지난 3년

간 다 빈치와 관련한 52장의 문서에서 조각조각 흩어진 지문을 200여 개 발견했고, 그것들을 조합한 결과 다 빈치의 왼쪽 집게 손가락 지문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지문 복원을 통해 다 빈치의 어머니가 중동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 빈치의 지문이 아랍인의 60%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전에도 다 빈치의 어머니가 지금의 터키 출신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 지문 조합으로 그 가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문이나 손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잡을 때 지문이 없다면 의외로 불편하다는 사실과 이 작은 주름 하나하나에도 생명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다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게 된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도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다 알지못하는 지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을 지금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